

北韓人口의 構造와 變化*

— 南北韓의 比較 —

朴 商 台

- | | |
|-----------------|---------------------------|
| 1. 序言 | 6. 도시화 |
| 2. 북한 인구자료의 특성 | 7. 북한 인구구조의 특징
(1990년) |
| 3. 총인구의 규모 및 증가 | 8. 인구정책 |
| 4. 출산력 | 9. 요약 및 평가 |
| 5. 사망력 및 사망의 원인 | |

1. 序言

여러 해 동안 북한의 인구는 베일속에 가려져 있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여러가지로 추측할 수 있다. 첫째는 북한이 개방된 체제가 아닌 폐쇄된 체제를 오랜동안 유지해 온 결과 자료가 외부에 공개될 수 없고 정부의 공식 발표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둘째, 인구에 관한 숫자 특히 성별·연령별 숫자는 병력에 동원될 수 있는 인구의 규모를 나타내 주므로 보안상의 관점에서 의도적으로 발표를 기피해 왔을 가능성이 크다. 셋째, 인구통계에 관한 지식은 고도의 기술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며 설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다해도 그 수가 극소수일 경우 이들이 2천만에 가까운 인구의 구조와 변화과정을 모두 다룰 수 없다는 점이다.

기초적인 자료(성별, 연령별 인구구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1970년대까지는 중앙정보부와 북한연구소등에서 인구 규모를 추계했으나 체계

*본 연구는 1990年度 文教部 共産團研究支援金을 받아 西江大學校 東亞研究所가 주관하여 이루어진 것임.

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지 못했다. 또한 북한에 관계되는 여러편의 논문에서 인구의 구조와 변화를 단편적이거나 기술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연구도 있었으나 대체로 추리에 의한 가정에 입각한 인구추계였으므로 정확성이란 점에서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없었다.¹⁾

북한에서 인구자료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1963년 이후 한번도 없었으며 1983년 영문으로 조선인민공화국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를 발표한 것이 최초의 공식자료였었다. 여기에 출생, 사망, 평균수명등이 나타난다. 그외에는 주체의학이란 잡지에 지역별, 직업별 사망의 숫자가 발표되었을 뿐이다.

1989년 북한은 1940년대 일제하에서 한국전체에 대해 행한 센서스이후 최초로 현대적인 센서스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UN의 인구활동기금(UNFPA)에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북한에서 실시할 최초의 센서스는 1992년 1월로 예정되어 있다. 1982년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대적인 센서스를 실시한 중국에 비해서 늦은 감이 있으나 북한의 결정은 유익하고 적절한 것이라 생각된다. UN에서는 기술적·재정적 원조를 해주는 대신 기본적인 인구에 관한 자료의 공개를 의무사항으로 북한측에 요구했다. 인구의 성별·연령별 구조와 출생·사망 이동에 관한 자료를 갖지 않고는 북한 인구의 변화과정을 분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UN의 지원과정에서 공산권문제 전문가인 Eberstadt가 1990년 5월 북한을 방문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에 대한 연구결과를 출판해도 좋다는 북한측의 허락을 받아 냈다.²⁾

본연구에서 북한에 대한 인구자료는 Eberstadt와 인구통계 전문가인

1) 최근의 연구로서 다음 두 논문을 들 수 있다.

가. 都興烈, “第三章 社會文化分野,” 南北韓比較叢書 (國土統一院, 1988), pp. 97-157.

나. 권태환, “北韓人口推計의 基礎 마련을 위한 研究,” 南北韓分斷狀況克服方向研究 (國土統一院, 1988), pp. 279-322.

2) 이에 대한 기사와 자료의 일부는 국내 일간지에도 소개된바 있다. 東亞日報, 1991년 1월 12일자 10-11면 참조.

Banister가 공저한 논문에 의존했다.³⁾ 본 연구의 목적은 Eberstadt가 발표한 1990년 인구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남북한 인구의 구조와 변화과정을 비교하는데 있다.⁴⁾ 인구의 구조란 인구의 크기, 구성, 분포를 말하며 변화과정이란 출생, 사망, 이동을 말하며 여기에는 혼인도 포함된다. 인구에 관한 지수로서 지나치게 전문적인 용어와 측정치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가능한한 비전문인들에게 전문적인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고자 하나 技術的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미리 밝히둔다.

2. 북한 인구자료의 특성

우리나라(남한)의 인구통계는 몇몇 선진국을 포함하여 그 정확성에 있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인구통계자료는 다양하다. 출생·사망·혼인 등에 관한 생정통계 자료의 정확성은 높은 편이 아니지만, 센서스 통계 자료의 경우 다른 나라들 특히 후진국들에 비해 정확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센서스의 정확성은 한나라의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매우 복잡하게 설명될 수 있으나 문화적·관습적 요인도 크게 작용한다. 우리나라 센서스가 비교적 정확한 이유중의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령에 대해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고 연령의식적이기 때문이다. 즉 연령보고를 기피하는 사례가 드물다는 것이다. 1950년대까지의 인구센서스상의 문제는 행정적·기술적 면에서 조직의 미비와 전문적 지식의 결여 등이 대부분이었다. 북한의 경우도 연령문제에 있어서는 남한과 비슷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3)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North Korea: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 (Center for International Research, U.S. Bureau of the Census, July, 1990)

4) 統計廳(1), 1990 人口住宅總調查結果 및 人口推計, (유인물), 1991.4.

統計廳(2), 1990 人口住宅 總調查結果, (유인물), 1991.4.

統計廳(3), 將來人口推計 (1990-2021) (유인물), 1991.4.

전례없이 북한이 인구자료를 외부인에게 공개한 데 대해 우리는 우선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UN에서 북한에 대해 기초자료의 공개를 요구하고 그 댓가로 기술적·재정적 보조를 약속했기에, 이와같은 보조를 확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되었거나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내놓은 것이 아닌가하는 데 대한 의혹이 간다.

이용가능한 북한의 자료들을 분석한 인구전문가들에 의하면 발표된 숫자를 조정해 놓은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일부 일관성이 없는 자료는 인구통계 및 인구연구 후진국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것이었다.⁵⁾ 만일 이와같은 오류조차 없었다면 오히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더욱 의심할 수 있다. 북한의 인구자료는 어느정도 내적인 일관성이 있으나 완전하지 못한 자료가 대부분이었다.

발표된 자료중 사망에 관한 자료는 매우 부정확했다. 특히 영아사망율이 대단히 낮았고 생명표상의 평균수명은 지나치게 높았다. 그러나 이와같은 현상은 자료를 허위로 조작한 결과가 아니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사망 특히 영아사망에 대한 보고수는 실제보다 낮으며 이와같은 과소보고 현상은 후진국의 공통된 현상이다. 그러나 북한처럼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다는 사회에서 사망신고자료가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낮게 보고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정부의 인민통제능력에 대한 기존의 관점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흥미있는 현상이며 앞으로의 연구과제라 할 수 있다.

중국과 소련 등 공산권 국가의 경우를 보면 기밀을 필요로 하는 인구통계 숫자는 삭제하거나 발표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통제적 오류에 의한 것이 아닌 의도적인 허위보고의 예는 전쟁중이나 내란기간중 적을 교란시키기 위한 극소수의 경우 외에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북한도 1975년 이후의 인구수에서 군인은 제외하고 있다. 1980년의 신년사에서 김일성은 북한국민의 1인당 GNP를 \$1920로 발표했다. 시장경제체제와 다르므로 직

5) Nicholas Eberstadt, 앞의 글, pp.15-23.

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고 계산근거도 애매하지만 이것은 과장된 것으로 생각된다. 총생산량규모(분자)를 과장하지 않았다면 인구의 수(분모)를 과소추정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중국의 경우도 1970년대 중반 1인당 식량생산량을 과장하기 위해 식량총생산량은 그대로 두고 분모인 인구수를 실제 인구인 9억에서 7·8억으로 과소추정한 예가 있다.

남북한이나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다른 나라의 인구를 비교·분석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는 여러가지 지수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는 점이다. 예컨대, 영아사망율은 일반적으로 총출생아중 만1세가 되기 전까지 사망한 영아의 천분비율을 일컫고 있으나 소련이나 동구 여러나라의 경우 생후 1주일 이내의 사망아수는 사산으로 처리하고 있어 사망율이 가장 높은 신생아의 사망수가 영아사망에서 제외되어 영아사망율이 서방 여러나라보다 매우 낮게 추정되고 있다.

또한 연령분류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5세 또는 10세간격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 0·16세, 17·54세, 55세 이상등 생소한 분류를 이용 발표하고 있다. 이와같은 자료로는 다른 나라와의 비교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체로 10년마다 실시되는 센서스인구의 전후비교를 불가능하게 해준다. 17·54세라는 특수한 분류는 17세에 투표권이 부여되며 정년이 55세인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되지만 병력규모를 은폐하기 위한 전략적 배려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북한의 정부관리들은 조출생율과 조사망율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서독과 영국의 조사망율이 북한의 조사망율보다 2·3배가 된다고 하며 북한의 낮은 사망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망율은 인구의 연령구조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사망율이 높은 연령층(65세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연령을 표준화하거나 생명표를 이용하지 않는 한 전체인구중 일정기간의 사망자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뿐이다.

북한은 1989년 이후 UN기구의 도움을 받아 북한의 인구관계 전문인력

을 훈련하고 있다. 또한 북한 국내에서도 1990년 인구 및 모자보건협회를 구성하고 인구문제에 대한 광범한 교육을 실시하고 피임과 모자보건에 관한 정보와 기술을 보급하고 있다.⁶⁾

한마디로 요약하면 북한의 인구통제는 날조된 것은 없다고 보여지며 다만 보고누락에 의한 것과 인구통계 처리상의 미숙함과 상이한 기준등이 자료의 신빙성 문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Question*

중립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만한 통계라 여길 수 있나?

3. 총인구의 규모 및 증가

〈表1〉에 제시된 총인구수는 북한의 경우 해당 연말인구수이며 남한의

표1. 남한과 북한에서 발표된 총인구수와 성비, 1949-1990.

(단위 천명)

연도	남한		북한	
	총인구	성비	총인구	성비
1949	20,167	102.2	9,622	98.8
1953	-	-	8,491	88.3
1955	21,502	100.0	9,359	91.6(1956)
1960	24,989	100.8	10,789	93.8
1965	29,160	101.4(1966)	12,408	95.7
1970	31,435	100.8	14,619	95.1
1975	34,707	101.2	15,986	86.9
1980	37,436	100.5	17,298	86.2
1985	40,448	100.2	18,792	84.5
1990	43,520	100.8	19,346	84.2(1987)

자료: 부록 표1 참조

6) UN, ESCAP, *Population Headliners*, No. 190 (January 1991), p.3.

인구는 모두 센서스 결과 발표된 인구수이다. 남한의 인구수도 사후조사 등에 의해 수정된 숫자들이 있으나 그 오류의 범위는 대체로 5%미만이었다. 북한의 경우 발표된 숫자는 실제 인구수와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이었다. 실제 인구와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우선 전체인구의 성비를 보아도 알 수 있다. 한 나라 인구의 성비는 출생시의 성비·연령구조·남녀간의 사망력의 차이, 성별인구이동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며 전쟁과 같은 특수한 사건이 있을 경우 출생·사망·국제이동 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남한의 경우 1949-1990년간 전체 인구의 성비(여자 100명당 남자의 인구비)는 100-102로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남한의 인구도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아 왔으나 대체로 6.25전쟁기간중 남성의 높은 사망율은 월남민중 남성의 비가 큼으로 해서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었다.

북한의 경우 1949년 성비 98.8에서 1953년 88.3으로 저하된 것은 전쟁과 월남민으로 인한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남성의 인명 손실과 남쪽으로의 이동에 의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후 북한인구의 성비는 계속 증가하여 1970년에는 95.1까지 올라간다. 그러나 1975년부터 성비가 급강하하여 87에서 1987년 84까지 저하된다. 이와같은 성비는 정상적인 인구에서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다. 북한측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인구에서는 군인의 수가 제외된 것이다. 북한당국은 모든 인구수에서 군인의 숫자가 제외되었다고 하나 실제 군인의 수가 제외된 것은 1975년 이후의 인구라고 추정된다.⁷⁾ Eberstadt 등은 발표된 출생수·사망수 및 출생과 사망에 대한 가정을 세워 1960년부터 1990년까지의 인구를 수정했다.⁸⁾

수정된 북한의 인구수와 남한의 인구수 및 1949-1990년간의 인구증가율은 <표2>와 같다. 지난 41년간 북한의 인구는 960만에서 2140만으로 2.23배 증가했으며 남한의 인구는 같은 기간 2.13배로 증가했다. 증가배수는 남북한간에 큰 차이가 없으나 각 시기별 증가의 템포는 달랐다. 남한의

7) Nicholas Eberstadt, 앞의 책, pp.53-54.

8) 수정된 인구의 1960-90년간 남녀별 인구수는 부록 표2참조.

표2. 남한과 북한의 총인구 및 인구증가율

연도	총인구수 (천명)		기간	증가율(%) ⁴⁾	
	남한 ¹⁾	북한(수정치) ²⁾		남한	북한
1949	20,167	9,622	1949-55	1.07	0.40(49-56)
1955	21,502	9,359(1956)	1955-60	3.00	3.03(56-60)
1960	24,989	10,568	1960-66	2.57	2.82(60-65)
1965	29,160(1966)	12,172	1966-70	1.88	3.34(65-70)
1970	31,435	14,388	1970-75	1.98	2.71
1975	34,707	16,480	1975-80	1.51	1.76
1980	37,436	17,999	1980-85	1.55	1.71
1985	40,448	19,602	1985-90	1.16	1.77
1990	42,869 ³⁾	21,412			

자료 : 1) 통계청 1991 (3), p.34

2) 1949-55 : Eberstadt and Banister, p.52. 1960-90 ; 같은 책, pp. 175-176.

3) 통계청에서 1990년 센서스인구를 수정한 숫자임.

4) 지수적(기하급수적) 연평균 증가율임.

경우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3%에 가까운 율로 급격히 인구가 성장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율이 둔화되었지만 65-75년간 약 2%의 증가율을 유지하다가 75-85년간에는 더욱 증가율이 저하되어 연평균 1.5%로 저하됐다. 1985년이후 남한의 인구는 일부 선진국의 증가율보다도 낮은 1.1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1955년부터 1975년까지 약간의 기복은 있었으나 연평균 3%내외의 높은 율로 증가했다. 1975년 이후 증가율은 매우 급격히 둔화되어 연평균 1.7%를 유지하고 있다. 남북한의 서로 다른 인구증가 과정은 현재의 인구구조에 나타나게 되며 계속 그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된다. 이에 대해서는 7절 인구구조(1990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남북한에 대한 특정 연도에 있어서의 조출생율, 조사망율, 그리고 그 차이인 증가율을 보면 <표3>과 같다. <표3>의 지수는 각 연도 1년간의 출생,

표3. 조출생율, 조사망율, 및 인구증가율
남한과 북한, 1960-1990

남한	1960	1970	1980	1990
조출생율(천명당)	42.1	29.9	23.4	15.6
조사망율(천명당)	12.1	9.4	6.7	5.8
자연증가율(%)	3.00	2.00	1.67	0.98
북한				
조출생율(천명당)	39.1	45.2	24.0	24.1
조사망율(천명당)	16.8	9.7	5.9	5.6
자연증가율(%)	2.70*	3.55	1.81	1.86

*북송교포등의 국제이동으로 증가율이 조출생율과 조사망율과의 차이와 다름.

자료: 부록 표3 참조.

사망, 증가를 나타내 준다. 남한의 경우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출생율과 사망율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는 1970년에도 3.55란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1980년 즉 10년후 그 절반 수준으로 급강하 한다. 다시 10년후인 1990년에는 1980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증가율은 대체로 조출생율의 변동에 더 큰 원인이 있었다. 조사망율의 경우 남북한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조출생율은 남한의 경우 1960년이후 계속해서 떨어진 반면 북한의 경우 70년에서 80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인구 천명당 45.2에서 24.0으로)를 보이고 1990년에는 1980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출생율과 사망율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 4절, 5절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보고자 한다.

4. 출산력

〈표3〉에서 제시한 조출생율은 인구의 연령구조에 영향을 받는다. 조출생율과 조사망율은 인구증가율을 계산함에는 정확한 지수가 되지만 실제 한 여자가 평균 몇명의 자녀를 갖게 되는가 또는 한 사람이 평균 몇년을 살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줄 수 없다.

〈표4〉에 제시된 총출생율은 이런 뜻에서 출산력에 대한 유용한 지수가 된다. 여기서 총출생율이라 함은 기준연도 1년간 가임연령층에 있는 각세의 여성들이 출산하는 비율로 출산한다면 한 여성이 15-49세간 갖게되는 총 정상 출산수를 말한다.

표4. 남한과 북한의 총출산력

연도	남한 ¹⁾	북한 ²⁾
1960	6.0	5.4
1966	4.8	6.5
1970	4.5	6.9
1975	3.3	3.9
1980	2.7	3.0
1985	1.7	2.6
1990	1.6	2.5

자료 : 1) 통계청, 1991(3), p.15.

2)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1990, p.111 및 Appendix A-2, p.179.

남한이나 대부분의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 중국·대만·일본등과 같이 북한의 경우도 수십년간 지속적인 사망율의 저하 이후 출산율의 저하가 뒤따르고 있다.

북한에서 발표한 자료를 수정해 놓은 자료중 남한과 비교할 수 있는 연도를 뽑아 놓은 <표4>에 의하면 북한의 총출생율은 1960년대까지 계속 상승했고 1970년 6.9명이란 최고의 숫자를 보여주고 있다. 6.9명이란 숫자는 엄청난 숫자로서 이와같은 높은 수준의 출산력이 계속될 경우 자녀의 평균 출산연령을 35세로 잡더라도 사망율에 큰 변동이 없다면 인구가 35년에 3.5배가 된다는 계산이 된다. 이와 같은 증가율은 계속 유지가 불가능한 것이다. 바로 5년후인 1975년에 총출산율은 3.9명으로 떨어지고 80년에 3.0, 85년 2.6, 그리고 90년에는 2.5로 저하된 것으로 추계된다. 2.5명은 선진국의 낮은 수준에 근접한 숫자이며 사망율의 급격한 저하가 없는 한 인구성장율이 매우 낮게 되는 수치이다.

1985년까지도 UN기관에서는 북한의 당시 총출생율을 3.6명으로 추계하고 있었다. 북한의 고위관리들조차 북한의 총출생율이 이미 크게 저하된 것을 추계하지 못하고 1989년 현재 3.6명을 2.5명으로 저하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⁹⁾ UN의 추계와 북한고위관리의 추계는 현실보다 매우 높은 추계였으며 북한의 총출산율은 이미 85년경에 그들의 목표인 2.5명에 가까운 2.6명으로 저하되어 있었다.

전통적인 높은 수준의 출산력을 유지해 온 북한의 총출산율이 1975년이후 급격히 하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의 경우도 같은 기간에 출산력이 약 1/2로 저하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매우 적극적이고 강제적인 출산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미 오래전 부터 모택동 사망후 중국은 개방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중국의 지도자들은 2.5-3%의 높은 인구증가율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인했다. 북한은 1988년이전까지 공식적으로는 출산억제정책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의 인구정책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으리라 짐작된다. 중국에서와 같이 1970년대 후반부터 북한의 조출생율과 조사망율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령구조가 젊기에 가임연령층의 부부가 1명만의 자녀를 갖는다 해도 당분간 더이상

9) Nicholas Eberstadt, 앞의 책, p.110 참조.

의 조출생율 저하는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의 출산력이 70-80년간 6.9에서 3.0으로 저하되기 위해서는 기혼부부의 광범한 피임방법의 보급 및 사용과 더불어 강력한 초혼연령의 제한 없이는 불가능했을것으로 짐작된다. 제도적인 강제없이 가임부부들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단시일내에 이룩하기 어려운 출산력저하 현상이다.

남한의 경우 출산력의 저하는 북한보다 10년 빠르게 시작되었으며 여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민간기구의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임연령층의 개인적인 동기와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남한의 출산력 저하현상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 템포가 빨랐으나 북한보다는 느렸다. 북한의 변화는 매우 급격한 것이었으나 1985년 이후부터 저하의 속도가 다시 둔화되고 있다. 북한은 1970년의 6.9에서 1985년의 2.6까지 15년간 4.3명이 저하되어 연평균 0.29명씩 저하되었다. 남한은 1960년부터 1985년까지 25년간 6.0에서 1.7명으로 북한과 같이 4.3명이 저하되었으며 연평균 0.17명씩 저하한 셈이다. 1985년의 1.7명이란 숫자는 재생산 이하의 수준으로서 다른 구미 선진국 수준보다도 낮은 총출산력을 보여주고 있다. 총출산력에 있어 1990년 현재 남한과 북한은 약 1.0명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 차이는 대단히 큰 것이다.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 70년 이후 출생수를 낮게 보고하고 있지 않나 의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15년간에 걸쳐 약 500-800만의 출생을 매년 체계적으로 조작해야 된다. 이같은 작업을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이것은 북한으로서는 불가능했던 작업이며 차라리 발표를 기피했을지언정 조작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5. 사망력 및 사망의 원인

가. 사망력의 수준

북한은 UN인구활동기금에 1986년말 현재의 성별·연령별 인구구조와 1949-87년간의 선별적 연말인구·성비·지역별 인구수, 출생수, 사망수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했으며 이외에도 특정연도에 대한 영아사망율, 평균수명, 사망의 원인별 사망자수, 의료 및 공중보건에 관한 자료도 제공했다.

사망에 관한 자료는 대체로 과소 보고된 것이었으며 특히 영아사망에 관한 자료가 과소 보고되어 있는 것이었다. 발표된 매년 연말 인구수와 매년 등록된 출생수만으로도 사망의 수가 적게 보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에서 발표한 유일한 성별·연령별 인구구조(1986년말)에서의 각세별 인구수와 해당 연도의 출생수·사망수를 비교해 보면 영아사망의 수가 과소 보고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영아사망율(만1세 미만의 영아 천명당 사망아의 비율)은 한 사회의 사회·경제적 발전의 정도를 가장 잘 반영해 주는 지수이다. 물론 선천적인 요인에 의한 사망은 민족이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경제발전 전에 따라 저하되지 않지만 대체로 후천적인 요인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저하되기 때문이다.

<표5>에 나타난 바와같이 북한의 영아사망에 대한 발표치와 수정치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수정치에 의하면 1970년대까지도 북한의 영아사망율은 남한의 영아사망율보다 낮았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 이것이 역전되고 있으며 남한의 경우 계속 큰 폭으로 저하되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의 저하폭은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다.

앞서도 말한 바와같이 조사망율은 인구의 연령구조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국가나 지역간의 사망력을 비교하는데 있어 연령을 표준화하지 않

표5. 남북한 영아사망율의 비교 1970-1990

	<u>북한</u>		<u>남한</u>
	<u>발표치</u>	<u>수정치</u>	
1970	22.7	57.3	65.2
1975	18.1	44.7	49.8
1980	14.2	39.5	35.2
1985	10.5	35.4	24.2
1990	—	31.3	16.4

자료 : 부록 표3 참조.

는한 의미가 없다. 가장 정확하게 표준화된 사망의 지수가 평균수명이며 생명표를 이용한 평균수명은 전체해당인구의 사망력을 이해하고 비교하는데 가장 유용한 지수가 된다.

발표된 평균수명은 전체 및 남·여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과다 추정된 것이었다. 이것은 영아사망율에서와 같이 성인 사망자의 수도 과소보고된 결과라고 보여진다.

〈표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이 발표한 57-86년간 북한인구의 평균

표6. 발표된 북한인구의 평균수명 1957-86.

<u>연도</u>	<u>전체</u>	<u>남자</u>	<u>여자</u>
1957	57.0	55.0	59.0
1960	58.3	56.0	59.0
1964	59.9	57.5	61.9
1969	63.8	62.0	68.0
1972	66.0	62.9	68.9
1976	73.0	—	—
1982	74.0	—	—
1986	74.3	70.9	77.3

자료 :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1990, p.74.

수명의 증가양상은 어느 정도 수궁이 간다. 그러나 문제는 남·여와 전체 간의 평균수명의 차이에 있다. 1960년과 1969년의 경우 전체인구의 평균수명이 60년에는 여자에 가깝다가 69년에는 남자에 지나치게 가깝다. 남자와 여자의 인구수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다른 연도에서와 같이 전체인구의 평균수명은 남자와 여자의 평균수명의 중간쯤에 위치해야 한다. 60년에는 여자의 인구가 많았다가 69년에 남자의 인구가 여자의 인구보다 2배이상 크지 않았다면 이 자료는 추계상의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berstadt 등이 모든 이용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여 수정한 평균수명과 남한인구의 평균 수명을 <표7>에 비교해 놓았다.

<표7>에서 읽은 수 있는 것은 한 민족이 남북으로 분단되고 접촉과 통신이 40여년간 두절된 채, 현격한 차이가 있는 사회·경제제도아래서 평균수명의 연장이 매우 유사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예상밖으로 차이가 없거나 그 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표7. 남북한 인구의 평균수명 1960-1990.

연도	전체	남 한		전체	북한(수정치)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960	55.3	53.0	57.8	49.0	46.0	52.1
1970	63.2	59.8	66.7	59.1	56.0	62.2
1980	65.8	62.7	69.1	66.0	62.7	69.0
1990	71.3	67.4	75.4	69.0	65.6	72.0

자료: 부록 표3 참조.

북한의 경우 마르크스-레닌주의 제도 아래서 생산과 분배구조의 개혁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했다. 예컨대, 토지개혁과 공중보전 시설의 확충은 생활수준이 낮은 기층 민중의 생활수준 개선에 큰 몫을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1960년대 초반까지 북한의 경제발전이

남한을 능가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리한 조건 아래에서도 북한주민의 평균수명은 남한보다 훨씬 낮았다.(<표7>의 1960년, 1970년 비교)

남한의 경우 지난 30년간 경제발전의 속도가 북한보다 대단히 빨랐다. 1970년대부터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북한을 앞질렀으며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북한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의 높은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을 향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에 와서 남한과 북한의 평균수명의 차이는 1960-70년대의 차이보다 현격히 줄어들어 거의 비슷하게 되었다.

북한은 현재 70세에 가깝게 평균수명을 높였지만 1970년대 중반부터 계속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식량사정이 악화되어 철저한 식량배급제도가 실시되고 있다.¹⁰⁾

식량보급이나 뚜렷한 경제발전이 없는 상황에서 평균수명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 북한의 역설적인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자본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이란 조건 없이도 공중보건이나 의학기술의 도입 및 발달, 분배구조의 개선(노동법 등 사회정책을 말함)만으로도 평균수명을 60세 후반까지는 높일 수 있으나 그 이상의 연장에는 경제발전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¹¹⁾

나. 사망의 원인

사망의 원인에 대한 자료는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결함이 생긴다. 첫째, 전체 사망자중 신고누락이 많은 경우, 즉 보고된 사망자수가 전체 사망자수중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경우, 둘째, 보고된 자료중 사망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수의 비율, 셋째, 사망의 원인중 분류불가능 또는 막연히 노환으로 인한 사망자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 등이다. 이들은 사망의 원인에

10) 李泰旭, "제3편 경제: 자력갱생정책의 이점과 한계," 李相禹外, 북한 40년 (서울: 乙酉文化社, 1989), pp.111-227.

11) United Nations, *The Determinants and Consequenues of Population Trends* (New York: The United Nations, 1973), p.157

대한 자료의 정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외에도 사망의 원인에 대한 국가간의 비교에 있어서는 용어상의 문제, 진찰기법간의 차이, 그리고 분류자의 자의적 해석에 의존해야 할 경우 그 해석 여하에 따라 사망의 원인에 대한 자료의 정확성과 비교가능성이 크게 좌우된다.¹²⁾

북한의 경우도 남한에서와 같이 WHO의 국제 질병분류기준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류·발표했다고 한다.¹³⁾ 그러나 WHO는 분류기준을 계속 수정함으로써 실제로 맞도록 기준을 정교화시켜 왔다. 북한에서 매년 이와같은 기준에 맞추어 사망의 원인별 사망자수를 발표했는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앞서 본 바와같이 북한의 사망율과 사망력은 크게 저하됐다. 사망의 원인 별로로는 더 큰 변화가 있었다. <표8>에서와 같이 1960년 후진국형의 질

표8. 사망의 원인별 백분비, 남한과 북한, 1960, 1986.

사망의 원인	남한		북한	
	1961 ¹⁾	1985 ²⁾	1960 ³⁾	1986 ⁴⁾
전염병·기생충병 및 호흡기 질환	33.2	8.7	42.5	13.3
암	3.7	15.1	2.6	13.9
순환기 질환	3.0	31.8	12.1	45.3
폭력·상해·사고	1.7	11.6	2.9	7.7
노령및 분류불능	22.4	18.0	13.7	2.6
기타	36.0	14.8	26.2	17.2
합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 1) Tai-Hwan Kwon, *The Trends and Patterns of Mortality and Health in the Republic of Korea* (UN, ESCAP, 1986), Asian Population Studies Series, No.76, p.38.

2)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1990. p.93.

3) 위의책, p.90.

4) 위의책, p.93.

12) United Nations, 앞의 책, p.129.

13) Nicholas Eberstadt, 1990, pp.89-91.

환인 전염병·기생충병·호흡기 질환이 전체사망의 42.5%를 차지했으나 1986년 이들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13.3%로 저하됐다. 같은 시기인 1961-85년 사이에 남한에서는 이들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의 33.2%에서 8.7%로 저하했다. 반대로 선진국형 질환인 노쇠로 인한 병-즉 암 및 순환기(심장 및 혈관)로 인한 사망은 북한의 경우 1960년의 14.7%에서 1986년 58.9%로 4배가 증가했다. 남한의 경우 이들 노쇠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61-85년간 6.7%에서 46.9%로 7배가 증가했다. 이와같은 현상은 남 북한 모두 사망원인이 후진국형에서 선진국형에 거의 가깝게 접근했음을 말해준다.

여러 나라의 경험적 자료를 이용하여 추제한 UN의 모형에 의하면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생활수준이 낮고 연령구조가 젊고, 평균수명이 50

표9. 두개의 상이한 모형 인구에서의 사망의 원인별 사망자의 백분비

사망의 원인	젊은 인구구조	노령화된 인구구조
	평균수명 50세	평균수명 70세
전염병·기생충병·호흡기질환	34.1	6.5
암	5.6	16.4
순환기 질환(심장·혈관)	18.7	46.5
폭력·상해·사고	4.3	5.2
기타	37.3	25.4
합계	100.0	100.0

자료 : United Nations, 1973, p.129

세인 모형 인구에서는 후진국형 질환인 전염병·기생충병·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의 1/3이상을 차지하지만 평균수명이 70세로 높아지고 연령구조가 노령화 될 경우 이들 후진국형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전체의 6.5%로 감소된다. 반대로 암과 심장·혈관 등 순환기 질환은 평균수명 50세·젊은 인구구조에서는 1/4미만을 차지하다가 평균수명 70·노령화된 인구구조에서는 전체의 2/3를 차지하게 된다.

남북한 모두 아직은 연령구조가 젊다고 볼 수 있으나 거의 선진국형의 사망원인별 유형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도 서로 상이한 체제와 조건 하에서 이같이 비슷한 사망의 원인에 따른 유형을 보이고 있음에 다시한 번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6. 도시화

한국은 지난 40년간 농촌과 도시의 인구비율이 완전히 역전되어 농촌위주의 사회에서 도시위주의 사회가 되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북한의 경우도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에서의 “도시지역(Urban)”이란 개념은 남한과 다르다. 남한의 경우 인구 5만 이상을 가지고 있는 읍이나 면지역을 행정적단위로 정부에서 시로 승격시키면 시가 된다. 북한에서도 ‘시’가 있으나 북한에서 발표한 자료의 도시지역이란 공업생산 노동자 3천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남한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표10〉에 나타난 바로 보면 북한은 한국전쟁 직후부터 급격한 도시화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50년대 후반에 가장 급격히 도시인구비가 증가했다. 그후 1960년대에도 계속해서 도시인구비가 증가했으며 1965-70년간의 증가는 이시기 여성의 산업노동력에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실행되면서 도시인구비와 도시인구의 절대적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¹⁴⁾ 1985년 현재 60%의 인구가 도시에서 거주하고 3/4이상의 노동력이 비농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음은 북한이 공업사회로 전환되었음을 증명한다.

남한의 경우, 1950년대에는 도시인구증가율이 미미하다가 1960, 70, 80년대 30년간 계속해서 급격한 도시인구 성장을 보여준다. 남한의 경우 1970년대 중반에 와서 도시인구가 전체인구의 반을 넘게 되지만 북한은 1970년 이전에 전체인구의 반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

14) Eberstadt and Banister, 1990, p.35.

표 10. 도시지역인구의 백분비 추이, 남북한, 1949-1990

연도	북한 ¹⁾	남한 ²⁾	
		도시	도시및 읍
1950	17.7(1953)	17.2	26.6(1949)
1955	29.0(1956)	24.5	-
1960	40.6	28.0	37.3
1965	47.5	33.5	42.6(1966)
1970	54.2	41.1	50.2
1975	56.7	48.4	59.1
1980	56.9	57.3	69.4
1985	59.0	65.4	77.3
1990	-	74.4	82.7

자료 : 1) 북한 :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1990, p.36.

2) 남한 : 이한순, “한국내 인구집중의 단계적 고찰,” 1991년 전기사회학
대회 발표논문요약문, 유인물, 1991, 6, 28.

한은 1990년대까지 계속 도시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북한은 1970년대 부터 도시인구 증가율이 현저히 둔화되고 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 있어 공통적인 현상은 수위도시비가 높다는 것이다. 한국의 수위도시비가 높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서울은 1980년 전국 도시인구의 39%를 차지했으나 1990년에는 33%로 그 비중이 감소했다. 물론 수도권 전체의 인구는 상대적으로 전국인구에 있어서의 비중이 같은 기간 높아졌지만 서울의 인구비율은 감소했다.(<표 11> 참조)

북한의 수위도시비는 예상외로 높은 것이었다. 1980-87년간 평양은 전체도시인구의 34.4%에서 30.7%로 약간 감소했지만 그 비중은 대단히 높은 것이었다. 북한과 같이 인구배치나 인구가동이 정부나 당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되는 사회에서 남한에 가까운 수위도시비를 유지하고 있음은

표 11. 남북한의 10대 도시인구, 1980-1990(단위 천명)

도시명	북한 ¹⁾		도시명	남한	
	1980	1987		1980 ²⁾	1990 ³⁾
A. 평양	1,842	2,355	서울	8,364	10,628
B. 함흥	594	701	부산	3,160	3,798
청진	509	520	대구	1,605	2,229
남포	—	370	인천	1,084	1,818
순천	—	356	광주	727	1,145
신의주	271	289	대전	652	1,062
단천	—	284	울산	418	551
원산	233	274	부천	221	456
평성	199	239	마산	387	449
사리원	174	221	성남	377	448
C. 총도시인구	5,347	7,669		21,434	32,397
수위도시비(A/C)%	34.4	30.7		39.0	32.8
수위·차위도시비 (A/B)배	3.1	3.4		2.6	2.8

자료 : 1) Eberstadt and Banister, p.37.

2)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 제1권 12-1, 전국, 1982.

3) 통계청, 1991(2), III, 부록

특이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수위·차위 도시비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의 인구는 1980년 부산인구의 2.6배이었으며 1990년에는 2.8배가 되었다. 평양은 차위도시인 함흥의 3.1배(1980)에서 3.4배(1987년)로 되었다. 이것은 평양의 사회경제적 집중도가 서울의 집중도 보다 높으면 높았지 작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표시해 주고 있다.

7. 북한 인구구조의 특징(1990년)

앞서 제2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발표된 북한인구의 연령구분은 특수하고 군인을 제외한 민간인만의 인구수이므로 성비가 대단히 낮다.(부록 표 4 참조). 55세 이상의 낮은 성비—즉 남성인구가 여성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은 6.25전쟁으로 인한 것이라고 유추되지만 17-54세 인구의 낮은 성비는 주로 군인을 제외했기 때문이었다. 남한의 인구는 1990년 현재 성비가 101.3이며 북한은 97.5로서 아직도 6.25전쟁의 영향을 구조적으로 안고 있다. 연령별로 성비를 보면 남한의 경우 54세까지 100을 넘고 있으나 북한은 40세부터 성비가 100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표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한의 인구는 1990년 현재 거의 정확하게 북한의 2배가 된다. 그러나 연령별로는 남북한의 인구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5세 이상의 인구는 모든 연령층에서 북한의 인구수는 남한의 반이 되지 않으며 특히 50세 이상의 인구는 2.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25세 미만의 경우 10-14세 연령층을 제외하고는 남한의 인구는 북한 인구의 배가 되지 못하며 특히 0-4세의 인구는 1.5배도 되지 않는다. 이것은 최근 북한인구의 출산력이 저하됐지만 남한만큼의 낮은 출산력에는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북한의 출산력이 더 이상 저하되지 않는 한 이와같은 인구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인구구조의 특징은 남한에 비해 젊다는 점이 가장 크게 눈에 띈다. 1990년 북한 인구의 중위 연령은 23.5세로서 남한 인구의 26.9세에 비해 3.4년정도 젊다. 0-14세의 인구는 남북한이 각각 25.8%, 29.4%이며 25세 미만의 젊은 연령층의 인구는 남한이 46.3%인데 비해 북한은 53.7%를 점유하고 있다. 반면 노년인구(65세 이상)는 남한이 5%인데 반해 북한은 3.7%로 추계된다.

표12. 남북한의 연령별 인구수, 성비, 및 인구비, 1990

연령	남한(A)		북한(B)		인구비 A/B
	인구수(천명)	성비	인구수(천명)	성비	
0-4	3,278	112.0	2,302	104.2	1.42
5-9	3,836	107.1	2,046	103.9	1.87
10-14	3,962	106.6	1,949	103.4	2.03
15-19	4,464	106.0	2,532	102.8	1.76
20-24	4,289	105.8	2,658	102.1	1.61
25-29	4,276	104.1	2,042	100.6	2.09
30-34	4,096	104.1	1,875	100.5	2.18
35-39	3,018	106.2	1,381	100.2	2.19
40-44	2,504	105.3	1,101	99.4	2.27
45-49	2,202	103.9	901	98.3	2.44
50-54	2,039	100.3	758	84.0	2.69
55-59	1,604	87.5	620	76.9	2.59
60-64	1,156	75.3	450	67.4	2.57
65-69	904	72.5	330	61.7	2.74
70-74	596	64.7	224	58.9	2.66
75이상	644	43.1	243	43.1	2.65
계	42,869	101.3	21,412	97.5	2.00

자료: 부록 표5 참조.

북한의 경우 젊은 연령구조로 인한 높은 출생율이 당분간 인구문제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60-74년간 출생한 인구가 노동력으로 진입했고 또 계속 진입하고 있어 이들의 훈련과 산업에의 적정배치가 발전은 좌우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한의 경우 계속 출산력이 낮은 수준으로 머물러 있을 경우 노령인구에 대한 대책이 새로운 인구문제로 등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구의 노령화는 축적된 경험을 이용할 수 있는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장점도 있으나 이보다는 사회보장비의 증가, 생산성의 저하, 창의성과 융통성의 부족 등 사회발전에 부정적인 면이 더 크기 때문

이다.

8. 인구정책

인구정책이란 출생, 사망, 인구이동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및 간접적 정책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 정부의 모든 정책은 인구정책과 직접·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여기서는 최근 북한의 출산력이 저하하게 된 배경을 북한정부의 공식적인 정책과 비교해 보는데 한정시켜 북한의 인구성장에 관한 정책을 살펴 보고자 한다.

북한의 급격한 출산력 저하는 북한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후 한국·대만은 물론 중국같은 큰 인구규모의 사회주의권 국가도 출산력이 모두 총출생율 6.0내외에서 3.0이하로 떨어졌으며 현재는 2.0내외로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경우 독특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이 없이 출산력이 급격하게 저하됐다는 점이다. 중국, 대만, 한국의 경우는 강력하고 계속적인 정부의 출산억제정책이 뒷바침해주고 있었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표명한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북한정부는 북한의 인구증가율이 너무 낮아 불만을 표시했다는 보고서는 나와 있다. 이를 위해 출산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북한정부의 정책을 찾아볼 수 없었으나 공식적인 입장은 기본적으로 다산장려적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로 미루어 보면 1970년대의 급격한 출산력의 저하와 정부의 정책간에는 모순이 있음이 발견된다. 다만 1970년대 초부터 여성의 노동력 활용이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이에 따른 여성들의 직장과 자녀양육에 대한 이중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산아제한을 묵인 내지 조장했을 가능성은 있다.

국토통일원(남한)의 남북한 비교연구에 의하면 북한은 6.25전쟁으로 인한 인명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인구증가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 그 결

과 북한은 1956년 부터 인구폭발현상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하여 1972년 부터는 출산장려정책에서 산아제한 정책으로 바뀌고 “多産이 산모건강에 해롭고, 자녀가 많으면 양육비 부담이 많을 뿐 아니라 여성의 사회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여 두명정도의 자녀가 적당한 것으로 유도했다고 한다.¹⁵⁾ 그러나 이 연구결과를 북한의 실재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다 하더라도 비공식적인 (귀순자·대외비 자료등)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북한의 공식적 입장이라고 증명할 수 없었다.

여기서 가장 큰 의문은 북한이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했다면 그것을 숨긴 이유는 무엇이며, 대중매체(신문·텔레비 등)로 부터의 논평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피임이 광범하게 보급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앞서 3절과 4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정책변화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¹⁶⁾ 1974년 부카레스트 세계 인구대회에서 중국 대표는 강대국들이 제3세계의 인구폭발을 내세워 산아제한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1950년대 그리고 1960년대까지 모택동등 중국의 지도자들은 인구문제를 정통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가지고 설명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인구문제란 봉건주의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내재적인 모순의 결과일 뿐이며 생산이 인구증가를 넘어서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인구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후 중국은 인구증가가 식량생산 증가를 넘어서는 현실에 직면했으며 이에따라 강력한 인구억제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중에서도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가장 이상적인 사회라고 자부하고 있었으므로 표면적으로는 인구문제가 없다는 것을 과시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짐작된다. 정부에서도 고위당국자들은 다산장려적인 정책을 표방해야 했다. 그러나 당의 핵심요원을 통해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과 혼인제한 정책(연령연기등으로)을 시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15) 都興烈, 앞의책, pp.114-117.

16) Eberstadt and Banister, pp.118-119. 참조.

산아제한은 아무리 통제된 사회라 하더라도 부부중심의 가족이 사회의 기본적인 조직이 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각 가족내 부부들의 피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없이 단시일내에 성공할 수 없다. 인도등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여러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정부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국민대중이 따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증명되었다. 1970년대 초반과 같은 급격한 출산력의 저하를 위해서는 최소한 2/3이상의 가임연령층의 부부가 피임을 실행해야 가능한 것이었다. 이와같은 광범한 피임방법의 보급과 사용에는 정부의 강한 정책적 의지와 실행못지 않게 가임연령층 부부의 피임에 대한 욕구 즉 피임실행의 동기가 전제되어야 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북한에서 개인적 차원의 동기는 충분한 정도였으리라 짐작된다. 북한의 교육수준은 오래전부터 높아져 있었으며 이에 더하여 여성의 노동력 참여율의 증가로 개인의 욕구와 정부정책의 방향이 서로 맞물려 인구증가 억제정책이 단시일내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9. 요약 및 평가

1992년 1월로 예정된 북한의 총인구 조사 실시계획을 계기로 국제기관의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북한측의 현실과 북한의 인구자료가 필요했던 국제기관의 요구가 서로 일치되어 그동안 오리무중에 쌓여 있던 북한의 인구자료가 공개될 수 있었다.

UNFPA에 발표된 북한의 인구통계자료는 부분적이고 제한된 것이었으나 인구전문가들에 의해 수정되고 재구성되었다. 북한에서 발표한 자료는 누락이나 전문적 기술의 부족으로 인한 오류는 흔히 발견할 수 있었으나 조작에 의한 허위보고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평가된다.

수정된 인구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인구는 1990년 현재 2,140만으로 1949년 960만에서 41년간 2.23배로 증가됐다. 같은 기간 남한의 인구도

2,017만에서 4,287만으로 2.13배로 증가됐다. 북한 인구증가의 특징은 한국전쟁 이후 1975년까지 연평균 3%의 높은 율로 증가하다가 75년 이후 그 증가율이 1.7%라는 낮은 율로 급격히 저하했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남한은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 전반까지는 북한과 같은 3%의 높은 율로 증가하다가 그후 65-75년간은 약 2%로, 75-85년간은 1.5%, 85년 이후에는 2%라는 대단히 낮은 율로 북한보다는 서서히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북한인구가 이와같이 변화하게 된 것은 사망율의 지속적인 저하와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에 기인된 것이었다. 북한의 총출생율은 1970년까지 대단히 높은 율을 보이다가 그 이후 갑자기 낮은 수준으로 저하했다. 이와같은 현상은 정부의 비공개적인 정책적 노력과 북한주민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동-여성 노동력 참여율의 증가, 교육수준의 향상, 영아사망력의 저하, 등에 의해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인구의 평균수명은 1960년 49세에서 30년후인 1990년 69세로 20년이 연장되었다고 추계된다. 남한의 경우도 같은 기간 55세에서 71세로 16년이 연장되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서로 다른 체제와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망력의 수준이 매우 동질적이란 사실이었다. 남한의 경우 1960년대까지는 경제발전이 없이도 외국으로부터의 의약기술의 도입과 위생시설의 발전으로 평균수명을 연장할 수 있었으나 1970년대 이후 평균수명의 연장은 경제발전의 영향도 컸을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북한의 경우 1960년대까지의 급격한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평균수명의 연장은 남한보다 낮았으나 1970년대 이후 북한의 평균수명 연장은 경제가 침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까지의 평균수명의 연장은 분배체제와 공중보건시설의 확충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것은 사망의 원인별 비율을 통해서도 입증될 수 있었다. 남북한 모두 사망의 원인별로 보면 후진국형에서 선진국형으로 진입해 있었다.

지난 40년간 남한과 북한은 농촌사회에서 도시사회로 변형됐다. 1950-90년간 남한의 도시인구는 17%에서 74%로 북한은 17%에서 59%

로 증가했다. 그 변화의 속도는 달랐으나 모두 공업사회로 변환된 것은 같았다. 서울과 평양의 상대적인 집중도는 예상밖으로 비슷했다. 오히려 인구만을 가지고 보면 평양의 수위비가 서울의 수위비보다 높아 집중도가 더 커지고 있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1990년 현재 인구구조는 남한과 비교할 때 두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전 연령층에 걸쳐 남한보다 성비가 낮았다. 이것은 한국전쟁의 영향, 시기별 출산력의 차이, 최근 남한에서의 남아선호 출산결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둘째, 북한의 인구는 남한보다 젊다는 점이다. 1990년 현재 25세 이상의 인구는 모든 연령층에서 남한이 북한의 2-3배를 보여 주고 있으나 25세 미만의 인구는 2배를 넘지 못하고 특히 0-4세는 1.5배 미만이었다. 구조적으로 볼때, 북한의 경우 젊은 연령층의 증가에 따르는 노동력의 훈련과 활용이 당분간 가장 큰 문제가 되리라 예상된다. 남한의 경우는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생산성문제, 사회보장, 인력활용등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 고 문 헌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0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 제1권 전수조사, 12-1, 전국, 1982, 12.
- 國土統一院, 南北韓比較叢書, 1988.
- 권태환, “北韓人口推計의 基礎 마련을 위한 研究,” 國土統一院, 南北韓分斷狀況 克服方向研究, 국통조 88-12-104, pp.279-322.
- 권태환·김태현, 한국인의 생명표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 金日炫·崔鳳鎬, 將來人口推計와 人口學的特徵 - 1990년 人口센서스 및 新人口推計를 中心으로 -, 1991년 한국 인구학회 학술 발표회의 자료, 1991.6.
- 都興烈, “社會·文化 分野,” 南北韓比較叢書 (國土統一院, 1988), pp.97-157.
- 李泰旭, “경제: 자력갱생정책의 이점과 한계,” 이상우의, 북한40년 (서울: 을유문화사, 1989), 제3편, pp.111-227.
- 이한준, “한국내 인구집중의 단계적 고찰,” 1991년 전기 사회학대회 발표논문 요

약문, 유인물.

統計廳(1), 1990 人口住宅總調查結果 및 人口推計, 1991.4.

統計廳(2), 1990 人口住宅總調查結果, 1991.4.

統計廳(3), 將來人口推計, (1990-2021年), 1991.4.

Eberstadt, Nicholas and Judith Banister, *North Korea: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 (Center for International Research, U.S. Bureau of the Census, July, 1990).

Kwon, Tai-Hwan, *The Demography of Korea*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77).

Kwon, Tai-Hwan, *The Trends and Patterns of Mortality and Health in the Republic of Korea*, UN. ESCAP, 1986. Asian Population Studies Series No.76.

UN, ESCAP, *Population Headliners*, No.190(Jan, 1991).

UN, *The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Population Trends* (New york: United Nations, 1973).

부록 표1. 남북한의 발표된 총인구 및 성별 인구, 1949-1990

(단위 천명)

연도	남한			북한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1949	20,167	10,188	9,979	9,622	4,782	4,840
1953	-	-	-	8,491	3,982	4,509
1955	21,502	10,753	10,749 (1956)	19,359	4,474	4,885
1960	24,989	12,544	12,445	10,789	5,222	5,567
1965 (1966)	29,160	14,684	14,476	12,408	6,067	6,341
1970	31,435	15,780	15,656	14,619	7,127	7,492
1975	34,707	17,461	17,246	15,986	7,433	8,553
1980	37,436	18,767	18,669	17,298	8,009	9,289
1985	40,448	20,244	20,204	18,792	8,607	10,185
1990	43,520	21,845	21,675 (1987)	19,346	8,841	10,505

자료 : 남한, 1949-1966 ; Kwon, 1977, pp.286-289.

1970-1985 ; 통계청(2), p.5.

1990 : 통계청(2), p.4

북한 : Eberstadt and Banister, p.52.

부록 표2. 수정된 북한의 총인구 및 성별인구, 1949-1990*

(단위 천명)

연도	전체	남자	여자	성비
1960	10,568	5,094	5,475	93.0
1965	12,172	5,894	6,278	93.9
1970	14,388	7,012	7,376	95.1
1975	16,480	8,070	8,410	95.9
1980	17,999	8,838	9,161	96.5
1985	19,602	9,650	9,952	97.0
1990	21,412	10,568	10,844	97.5

*1986년의 인구구조와 1949-1987년간의 연달 인구총수, 및 출생수, 사망수 등을 이용하여 미국 통계국에서 추계하여 수정한 수치임.

자료 : Eberstadt and Banister, 1990. p.55.

부록 표3. 남북한 주요 인구지수의 비교, 1960-1990.¹⁾

	1960	1970	1980	1990
<u>총인구수(천명)</u>				
남한	25,012	32,241	38,124	42,869
북한	10,568	14,388	17,999	21,412
<u>조출생율(인구천명당)</u>				
남한	42.1	29.9	23.4	15.6
북한	39.1	45.2	24.0	24.1
<u>조사망율(인구천명당)</u>				
남한	12.1	9.4	6.7	5.8
북한	16.8	9.7	5.9	5.6
<u>자연증가율(인구천명당)</u>				
남한	30.0	20.0	16.7	9.8
북한	27.0	35.5	18.1	18.6
<u>인구밀도(km²당)</u>				
남한	254	328	385	432
북한	88	120	150	178
<u>조출생율(가임여성1인당)</u>				
남한	6.0	4.5	2.7	1.63
북한	5.4	6.9	3.0	2.5
<u>평균수명(전체)</u>				
남한	55.3	63.2	65.8	71.3
북한	49.0	59.1	66.0	69.0
<u>(남자)</u>				
남한	53.0	59.8	62.7	67.4
북한	46.0	56.0	62.7	65.6
<u>(여자)</u>				
남한	57.8	66.7	69.1	75.4

부록 표3. 남북한 주요인구지수의 비교, 1960-1990.¹⁾

	1960	1970	1980	1990
북한	52.1	62.2	69.0	72.0
<u>영아사망율(영아천명당)</u>				
남한 ²⁾	—	65.2	35.2	16.4
북한	95.0	57.3	39.5	31.3
<u>도시인구비(%)</u>				
남한	28.0	41.1	57.3	74.4
북한 ³⁾	40.6	54.2	56.9	59.6(1987)

자료 : 1) 남한 : 통계청, 1991(3), p.29

북한 : Eberstadt and Banister, pp.175-180.

2) 권태환, 김태현, 1990, p.66 및 부표 참조.

3) Eberstadt and Banister, p.36.

부록 표4. 북한이 발표한 성별 연령별 민간인 인구수, 1986년말

연령	(단위 천명)			
	전체	남자	여자	성비
0	387	198	189	105.1
1-3	1,204	614	591	103.8
4-5	923	471	452	104.1
6-15	4,400	2,236	2,165	103.3
16	544	265	280	94.5
17-54	9,817	4,287	5,530	77.5
55-59	574	223	352	63.3
60-89	1,197	415	782	53.1
90-99	11	3	9	33.6
100+	0.05	0.01	0.04	16.7
계	19,060	8,710	10,350	84.2

자료 : Eberstadt and Banister, 1990. p.65.

부록 표5. 남북한의 수정된 연령별 성별 인구수, 1990

(단위 천명)

연령	남한 ¹⁾			북한 ²⁾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0-4	3,278	1,733	1,547	2,302	1,175	1,127
5-9	3,836	1,984	1,852	2,046	1,043	1,004
10-14	3,962	2,044	1,918	1,949	991	958
15-19	4,464	2,297	2,167	2,532	1,284	1,248
20-24	4,289	2,205	2,083	2,658	1,343	1,315
25-29	4,276	2,181	2,095	2,042	1,204	1,017
30-34	4,096	2,089	2,007	1,875	940	935
35-39	3,018	1,554	1,464	1,381	691	690
40-44	2,504	1,284	1,219	1,101	549	552
45-49	2,202	1,122	1,080	901	447	454
50-54	2,039	1,021	1,018	758	346	412
55-59	1,604	749	856	620	270	351
60-64	1,156	496	659	450	181	269
65-69	904	399	524	330	126	204
70-74	596	234	362	224	83	141
75+	644	194	450	243	77	165
계	42,689	21,568	21,301	21,412	10,568	10,844

자료 : 1) 남한 : 통계청, 1991(3), p.34.

2) 북한 : Eberstadt and Banister, 1990, p.192.